



##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수선하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수출대상국인 중국이 긴축경제로 속도조절을 하고 있으며 원유값의 급등, EU의 확대에 따른 대규모 블록화 추세, 그리고 다국간의 빈번한 FTA 체결 등 국제경제계 흐름이 심상치 않다. 이러한 여건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기 보다는 어려움을 안겨 줄 요인이 많은 것 같아 걱정스럽다. 연간 1천만달러 이상의 각종 비즈니스 다이어리 및 인쇄물을 세계 7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Y사의 L회장은 최근에 일본에 다녀온 소감을 이야기 하면서 일본은 이제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고 국제경쟁력도 회복했으며 노사 모두 '정신 차렸다'고 지적했다. L회장은 동경의 특급호텔인 뉴오파니 호텔의 하루 숙박료가 24만원 정도인데 같은 급의 국내호텔 숙박료는 36만원이고 일본 골프장의 그린피가 15만원 정도로 우리나라 보다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불황을 겪으면서 일본은 더욱 친절해진 느낌을 받았으며 심지어 10년전에 비해 인건비가 20%나 다운된 인쇄분야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이길 수 있겠느냐고 L회장은 반문한다. 정치, 사회, 문화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沙上樓閣일 따름이다. 10년동안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땀뚝고 있고 이유없는 낙관론에 젖어있는 국내사정이 외국전

문의의 시각에서 이상하게 비쳐지고 있는 현실도 우리가 흥미해 볼 일이다.

경기변화에 민감한 인쇄업계가 미래예측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각종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인쇄인들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냉정하게 볼 때 우리나라의 인쇄수준은 국제적으로 어정쩡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유럽, 미국 등지로 수출하고 있는 소수의 인쇄사를 제외하고는 자력으로 해외 시장을 뚫고 나가기 어려운 현실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거래처인 제조업체 등이 해외로 해외로 떠나가고 비전문분야로부터의 인쇄영역 침식은 계속되고 인터넷 IT산업의 팽창이 인쇄업계를 벼랑끝으로 내몰

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세월이 바뀌어도 인쇄물 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달콤한 말을 믿고 싶지만 지금과 같은 국내인쇄업계의 눈치보기 수주형태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오늘까지 잘 지내왔으니 큰 탈없는 내일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착각'임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듯하다.

정말 심각하게 우리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때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다.

〈오세익 · 편집주간〉

“세월이 바뀌어도 인쇄물 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달콤한 말을 믿고 싶지만 지금과 같은 국내인쇄업계의 눈치보기 수주형태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오늘까지 잘 지내왔으니 큰 탈없는 내일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착각’임을 깨닫는데 오랜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듯하다.